

국립민속博 인도신화 특별전



10명의 화신들. 비슈누의 10명의 화신(아바타)을 표현한 세밀화. 비슈누의 모든 화신을 함께 그려놓은 그림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인도에는 3억 3000 종류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 크게 자연 숭배와 관련 있는 베다 신들과 힌두 신화속의 신들로 구분되며, 비슈누[天神]와 시바신[明王]은 힌두교의 2대신으로 인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IT강국인 인도는 '볼리우드(Bollywood)'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IT와 영화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들을 구현해주는 주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래를 이끄는 인도인들의 상상력의 원천은 그들의 신화(神話)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다문화 특별전 '인도로 떠나는 신화여행' 전을 9월 19일 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2009년부터 세계 문화에 대한 올바른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시작된 것으로 올해에는 인도의 의례와 종교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전시로 마련됐다. 전시는 ▷인도와 인도의 종교 ▷신들의 이야기 ▷신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등 3부로 구성돼 인도와 힌두 신화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태양신 수리아와 힌두교의 대표적 신인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등과 관

련된 신상, 부조, 공예품, 의례 도구 등이 소개된다. 우리나라의 단오날을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인도 태양신 수리아에서 어원이 비롯된다고 한다. 시바신의 자식이며 코끼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네샤는 부와 명예의 신으로 인도 곳곳에서 가네샤를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슈누는 10개의 화신인 아바타(avatar)를 갖고 있는데 부처는 비슈누의 9번째 아바타이다. 전시에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 지금도 드라마로 제작돼 방영



부와 명예의 신 가네샤. 가네샤는 원래 군중의 지배자란 뜻이다. 쉬바와 파르바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가네샤의 외모는 코끼리 얼굴에 긴 코가 있고, 이빨은 하나이며, 팔은 넷이고, 특 내민 배에는 뱀으로 피를 두르고 쥐를 타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이 숭배되고 있다.

중인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이야기를 담은 세밀화 등도 소개된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인도 가정집의 신단을 재현해 현재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 뿌리깊게 내려있는 종교적 심성도 엿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 행위 등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경제적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이 전시를 통해 인도 문화와 우리 문화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2)3704-3114 이나는 기자

韓·日 오가며 기록한 식민의 흔적들

다큐사진가 이재갑, '상처 위로 핀 꽃' 展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께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마을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곳이 일본의 어떤 지역인지도,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갑은 오키나와 요미탄 촌 근처 '한의원'이 있는 곳에 와서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의 내막을 알게 된다.

「나의 원작(본작)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808번지'다. 일본 군수물자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징용당하고 억압받던 그곳에서 비문 및 새겨진 돌에 자신의 본적과 같은 희생자의 주소를 발견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사진가 이재갑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내가 해야만 되는 작업"이라고 결심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진으로 끈질기게 기록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인 그가 8월 26일까지 대

구 태켈러리에서 '상처위로 핀 꽃' 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사진가 이재갑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카메라에 담은 한국 속의 일본문화와 일본에서의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흔적을 모아 마련됐다.

이재갑의 사진기는 흐르는 시간의 자취와 변해가는 사물의 형태에 대한 관찰을 담는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한 세기 전의 역사와 유령처럼 떠도는 식민지의 잔영을 우리 앞에 불러낸다.

되새기고 싶지 않은 치욕의 상처라 하더라도 사진을 통해 일제를 통한 근대화, 그 고통의 기록이 가지는 그 의미를 곱씹을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이다.

전시공간인 태켈러리는 대구의 종로에 위치한 곳으로 일제시대에 지어진 양조장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다. 대구의 도심지에 원형 그대로 보존된 일제시대의 건물은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시각적 충격을 자아낸다.

이재갑은 "이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선부른 사전적 결론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과정을 통한 역사사업과 일본 내 남아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일본은 4개의 섬과 9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데 현재 5개지역을 답사했다. 최북단 홋카이도현까지 작업하려면 길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길 위에서 발견한 조선의 아픈 역사는 내게 말을 한다. 패전과 동시에 멈춰버린 빈 공간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하고 때론 비명처럼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며 "도저히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들의 일상은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혼혈인을 다룬 <또 하나의 한국인>展, 경산코발트 광산의 학살사건을 다룬 <잃어버린 기억>展 등의 작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평가받는 이재갑의 30년 사진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053)252-2517 이나는 기자



①후쿠오카 조선 초·종교학교: 2004년 4월 이전까지 사용하던 후쿠오카 재일조선인학교 운동장으로 우리 정서가 스며있는 천대장군과 지하어장군의 우렁찬 기성과 힘이 느껴진다. ②후쿠오카 아하타 제철소 홍보부스: 과거 아하타 제철소를 리모델링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기념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든 홍보부스다. ③오사카 포병 창 화학 분석소: 완성한지 100년이 넘었다는 초소와 화학전에 대비한 포병 창 분석소로 현재는 비어 있다.

서동의 꿈과 미륵의 통일

전북 익산시 백제 무왕展 8월 31일까지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로 유명한 백제 무왕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가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8월 31일까지 열린다.

'서동의 꿈 미륵의 통일 - 백제 무왕'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무왕의 익산 경영, 사비궁과 익산왕궁, 무왕의 야심과 카리스마' 등 3개 소주제로 열리며 왕궁리 유적과 관복리 유적 출토 유물 비교를 통해 백제 무왕의 익산경영의 의미를 전달한다. 전시되는 주요 유물은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병과 사리내함, 왕궁리유적 출토 유물(금제

품, 녹유호, 토기완, 비루, 짚신, 정원석 등), 제석사지 출토 유물(천부상, 약귀상, 소조상, 연화문수막새, 벽체편, 벽화편 등) 등 174건 189점이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는 '용의 아들, 서동 왕이 되다', '무왕의 정복해야만 했던 나라 신라', '무왕의 왕비 사택씨와 선화공주', '무왕과 미륵사' 등 4개의 테마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삼국유사 무왕조 등 관련 문헌자료, 미륵사지 석탑 사리기 일괄을 비롯한 미륵사지 출토유물, 산성 출토유물을 전시한다. (063)859-4632 이나는 기자

불영TV, '대불정능엄신주' 발매

도민 스님의 육성 담아 오디오CD, DVD 제작

죽림사 주지 도민 스님의 육성을 담은 '대불정능엄신주' 음반이 나왔다. 불영TV는 도민 스님의 대불정능엄신주를 녹음한 오디오 CD와 동영상 DVD를 제작했다.

성철 스님은 한국전쟁이 지난 후 (1952년경) 고통과 불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 생으로 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예불대참회'와 새로 읊었던 '능엄주'를 외우고, 아비라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비라 기도는 '옴 아비라 흠 캄 스바하'라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장례장삼을 하고 외우는 기도로, 중국 당나라 때 총림의 수행법으로 전해 오던 것이다. 불영TV는 "성철 스님의 말을 잇기 위해 더 많은 불자들에게 능엄주를 보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가격 1만 5000원. (02)2236-7209 이나는 기자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 보험

-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 부동산 분석 전문가(건국대학원 수료)
 -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 강의 요청시 (5인이상, 1시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천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남석화, 조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천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③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④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다음카페 '아토피피해탈원'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흠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시음용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20년 오랜습씨 **갈상** 탕화불상에숙원

8각좌대 **책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책보도불도배**

있는 곳: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문의처: 010-5595-8533
알하는 곳: 054) 773-8533